

現代 室內空間에서 나타난 'Installation' 공간-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 Expressed Characteristics to Installation on the Contemporary Interior Design

이재석*/ Lee, Jae-Seok

도중현**/ Do, Jung Hyun

이정욱***/ Lee, Jeong-Wook

Abstract

The latest art is being characterised by an ever active exchange between different genre. Installation Art is an artistic attempt to integrate visually and dynamic consciousness and movement of human beings and the actual living space based on the new spatial concept of integrative Environment Approach. Through the visual and structural reflection of personal experience and movement, new interpretation of space in which various activities and events take place in relation to time is realized.

The methods of Installation that relate on the contemporary interior design are as follow : expression of object through deconstruction , space of every experience, enlargement of concept of space, space of interactive.

키워드 : 일상성, 오브제의 연출, 상호대화(Interactive)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세기 예술과 그 사회의 일반적 특성을 다원화 경향으로 사회구조가 수직적 위계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고, 수평적 관계의 대중으로 전환, 문화 영역과 각 영역이 독자성을 수호하기보다는 상호 침투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는 타 예술분야 즉 회화, 조각, 사진, 영화 등의 타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 받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Installation을 회화나 조각적 범주에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서 개인적 경험의 본질을 반영함으로써 자연 건조 환경 등 확대된 컨텍스트(context)내에서 현대 공간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nstallation 포괄적이고 자율적인 표현특성들과의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상호 공존하는 통합예술로서 실내디자인의 확장된 시각과 새로운 개념을 파악하여 열려진 사고방식과 예술적 조형성으로 나타나는

표현적 특성들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진행 단계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단계는 Installation의 특성을 토대로 유형별 공간표현기법을 정리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설치미술의 특성에서 나타난 일상성, 오브제의 연출, interactive의 공간표현 특성에 의한 현대실내공간의 표출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셋 번째 단계는 연구에 대한 종합고찰과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를 맺는다.

2. Installation¹⁾의 특성

설치미술은 20세기 미술의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일루전(illusion)에 의한 이미지로 점철되어온 회화가 재현적 논리에 의해 구축된 틀을 탈피하게 되는 과정에서 3차원의 실제적 세계로 도약하는 하나의 예술양식이다. 이러한 설치미술을 형성

1) Installation이 설치로 미술작품을 보여준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말은 종이 위에 드로잉(drawing on paper), 캔버스 위에 유채(oil on canvas)와 같이 매체나 기법을 소개하는 하나의 양식(mode)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형식이라 할 수 있으며 특정 장르나 혹은 이즘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현대미술의 기법적 '양식'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패션(fashion)을 가리키는 말이다.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전공 석사과정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전공 석사과정

*** 이사,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조교수

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전통관념으로부터 탈피한 오브제가 어떠한 형식에 의거해 선정된 장소에 설치됨으로써 그 자체의 물성을 이탈하여 새로운 조형공간을 창출하고 또한 그것이 놓여진 공간과 인간을 둘러싼 주위 즉 환경과의 관계에서 역동적으로 의식의 교류가 형성되어지는 것에서 유발된다.

이와 같이 Installation에서의 사물을 어느 곳에 설치 배치한다는 말은 곧 오브제의 활용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설치미술이 오브제의 연장선상에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양자의 밀접한 관계는 결국 공간에서 구분되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완결된 '물체'에서 가변적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그와 더불어 소재영역의 확장으로 공간연출의 이미지가 대두되는 데 그것은 인간의 형성하는 생활환경과 그에 따른 사물들에 자유로운 배치로 관객과 보다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관람자의 신체적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그러한 관람자의 경험이 작품의 의미를 이루는 주요 요소로 수용되므로 문화의 대중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즉 작품과 관람자, 또는 작품과 공간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의해 관객의 창조적 감각을 자극하고 그의 행위도 전체 작품의 일부로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Installation'은 공간경험과 지각을 통하여 사물과 예술에 대한 획일화된 전통적 개념을 초월하고, 실재하는 외부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예술작품과 관객, 그리고 예술가의 절대적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조형의식의 흐름과 미술이 환경적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산물이다.

이상과 같이 Installation의 공간표현특성을 크게 3가지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Installation의 공간-표현특성





Installation의 공간-표현특성		
예술과 일상의 결합	오브제와 공간의 결합	사물과 관객의 결합

마르샬 래스(M. Raysse)는 네온을 사용하여 캔버스 바깥의 실제공간을 주지시켰으며, 부르스 나우만(B. Nauman)의 것은 광고판으로 가득찬 대중 소비사회의 매체를 드러내었고, 또한 덴 플래빈의 형광튜브는 대량생산시대의 익명적인 물체로서 사용하였고, 일리아 카바코프(I. Kabakov)는 1980년대 말경부터 시도한 '총체적 설치(Total installation)'에서 구 소련의 집단 아파트나 공공장소를 옮겨 놓고 있다. 즉 획일적 체제의 일상을 패러디를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삶의 무대로 이끌어 망각 속에 잠들기 쉬운 우리의 비판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현대 실내공간에서 나타난 일상성은 예술작품과는 달리 실체로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현실인 기계문명, 대량생산, 대량전달 등에 의해 형성된 도시 생활을 내재적인 조형언어로 받아들인다.

SITE은 'Willi Wear Showroom'에서 손을 대지 않은 옥외의 엘리먼트로 구성 즉 벽돌벽, 파도형 양철판, 수도관이나 배수관, 밸브, 소화전 등 모두 거칠고 가설적인 상태인 것을 선택하여 공간을 표현하고 있고, 론 아렌드(R. Arad)는 'adidas sport cafes-1996'에서 시각적-대중적 요소, 즉 문자, 인물, 광고물 등과 같은 요소들을 사용하여 대중들과 보다 쉬운 의사전달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성의 흐름 통해서 아카데미의 고급디자인과 저급디자인의 대립적 이원구조 간의 장벽을 부수고 각각의 존재를 긍정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표 2> 현대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표현특성-일상성

일상성			
시각적-대중적 요소사용		키치적 양상과 레디메이디	
			
Bruce Nauman-목매달린 사람-1995	Ron Arad adidas-sport cafes-19961	Ilya Kabakov-화장실-1992	site-willi Wear Men's showroom-1983

3.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표현특성

3.1. 일상성

미술은 한 개인의 작업이면서도 시대와 사회의 소산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실의 세계를 투영하게 된다. 이것은 비예술적인 삶의 요소를 예술적 공간에 도입, 예술과 삶의 통합으로 상호 소통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구조화함으로써 관념적이고 폐쇄적인 틀에서 현대사회가 직면한 환경, 인종, 성, 전통, 역사의 문제 등 열려진 현대조형의 예술로서의 의미를 확대시키게 되었다.

3.2. 오브제의 해체와 연출

'오브제'와 'Installation'을 전혀 다른 위상 속에 위치시키는 것은 '공간'이다. 단순히 공간 속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규정짓고 구조화하며 작품화한다. 그리하여 Installation은 그것이 형성하는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공간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설치미술은 오브제의 물질성과 그 물질이 작용하는 공간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2)본래 물건, 물체,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 불어로서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이것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즉 자연물의 오브제, 해석된 오브제, 기성물의 오브제, 상징기능의 오브제 등

다고 볼 수 있다.





Installation이 본격적으로 발전되면서 양성한 실내 설치작업을 행한 대표적 작가들은 올덴버그(C. Oldenburg), 블라덴(R. Bladen,) 토니 크랙(T. Cragg), 쿠넬리스(J. Kounellis) 등이 있다. 쿠넬리스는 곡물, 숯, 양모, 석탄, 돌, 프로판 가스 불꽃 등의 자연물이나 공업재료, 또는 삼베자루, 침대, 로프, 양초, 담요, 코오트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블라덴은 'X'에서 워싱턴의 코코런 화랑 2층까지 뚫린 실내에 전시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신고전주의적인 화랑이 왜소하게 보여질 만큼 그 존재는 무대 속에 이중으로 장엄하게 우뚝 등장한다. 여기에서 오브제는 단순히 공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규정짓고 구조화하며 작품화한다.

현대실내디자인은 실용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과 동시에 인간의 잠재의식을 파고드는 심리적 측면과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공간에서 순수미술의 오브제적 요소를 공간의 요구에 맞게 도입하여, 독자적인 디자인어휘로 활용하는 것은 현대 실내디자인의 큰 흐름 중의 하나이다.

필립스탁(P. Stack)은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아사이 맥주홀에서 건축물 상부에 떠다니는 불꽃을 상징하는 황금색의 오브제를 설치하여 강한 건물의 이미지를 풍겨낸다. 그 공간의 내부 1, 2층에서는 맥주의 거품모양, 또는 납근의 형태에서 유추되었다고 얘기되는 공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기둥이 마치 지지재로서의 기능을 거부하고 오히려 각각의 개성을 갖는 독립된 기념물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 같다. 또한 Allan Waxer는 'Furniture Made from its Wall'에서 언급하기를 테크놀로지 문화 안에서 모호한 사물을 만드는 즉 '새로운 물체를 만드는 사람(new object maker)' 이라고 언급한다. 즉 새로운 오브제는 공간에 활력을 만들고, 실내공간에 풍부한 의미를 전달한다.

현대실내공간은 오브제를 도입하고, 설치함으로써, 실내 공간의 비주얼 타겟(visual Target), 혹은 공간을 지배하는 요소로서 실내 공간에 풍부한 어휘를 제공하는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

<표 3> 현대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표현특성- 오브제

오브제의 해체와 연속			
오브제의 연속		공간의 구조화	
			
J. Kounellis-무제 1996	p.starck-아사이 맥주홀-1990	R. Bladen-The X-1967	A. Waxer-Furniture Made from its Wall -1990

3.3. Interactive

현대에 있어서 조형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만지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주위를 거닐며 보고 즐길 수 있는 참여예술로 변화되어왔다. 관객의 참여는 작품의 예술가치와 그 기능을 실현하며, 동일한 3)장소에 포함되어 행위와 더불어 자신의 발견과 존재 가치를 인식하며 작품과 일체감을 느끼면서 관객자신도 작품에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





뒤상(M. Duchamp)은 'Fresh window'작품에서 인간의 신체 행위, 즉 의미가 담긴 행위와 공간이 연결될 때 비로소 공간과 인간과의 작용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이 아닌 정신적 의미에서의 만남을 합친 상호작용의 장소가 된다. 또한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작품에서 관람자 자신의 신체를 거울에 비춤으로써 작품의 일부가 되고 자신의 움직임에 의해 작품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지각적 인지와 심리적 의미 부여를 통해 작품의 존재를 완성함으로써 궁극적인 '참여'에 이르게 된다.

현대실내디자인은 기능주의 공간을 탈피하면서, 인간의 생활 방식과 정신적인 생활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환경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중성적인 공간, 기능화된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 만남을 통하여 비로소 상호작용 되는 장소 즉 공간과 신체의 연결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모된다.

딜러(Diller)와 스키퍼디오(Scofidio)의 'Slow House' 에서 건축 무대와 가구, 인간과의 연극적 결합을 통한 외부와 내부 공간의 현실과 가상의 이미지는 새로운 공간 체험을 만들어내다. 또한 덴 그레이엄(D. GRAHAM)의 'Fun House fur Munster'에서 두 대의 거울 유리를 이용하여 파빌리온 면들을 동시에 반영과 투명으로 만들어 자신과 자연이 혼합된 다양한 면을 움직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

실내디자인에서의 움직임의 추구는 자아나 육체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신체를 재발견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간의 경험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을 공간 속에 용해시키고 있다.

<표 4> 현대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표현특성-Interactive

Interactive			
신체연정으로서의 내부공간		퍼포먼스적 공간	
			
M. Duchamp - Fresh window-1920	Diller & Scofidio Slow House-1991	M. Pistoletto-이브와 아담-1962-85	Dan Gram Fun House fur Munster-1994

3)장소를 인간의 생활, 움직임 등의 비 물질적 상황과 상태가 개입되어 역동적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퍼포먼스적 장치를 생각하는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도표로 요약할 수 있다.

<표 5> 현대실공간에 나타난 'Installation' 공간-표현특성

현대실내공간에 나타난 'Installation' 공간-표현특성		
일상성	오브제의 해체와연출	Intera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대중적 요소사용 ■ 키치적 양상과 레디메이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브제의 연출 ■ 공간의 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연장으로서의 내부공간 ■ 퍼포먼스적 공간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실내공간에서 'Installation'적 공간-표현 기법의 적용은 상태보다는 '과정', 존재보다는 '변환'을 추구하는 현대디자인 경향을 표출하는 것이며, 공간에서의 다양한 행동과 미적 체험, 새로운 언어에 의한 사고의 전이를 제시하고, 각각의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아디덴티티(identity) 이미지를 갖는 공간 연출의 가능성을 만들며, 공간에서 새로운 표현기법으로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윤난자, 현대미술의 풍경, 예경, 2000
2. 강태희, 현대미술의 문맥읽기, 미진사, 1997
3. 서성록, 설치미술 감상법, 대원사, 1995
4. 박용숙, 현대미술의 반성적 이해, 집문당, 1996
5. 존 워커, 매스미디어와 미술, 시각과 언어, 1999
6. 안나 모진스카, 20세기추상미술의 역사, 시공아트, 1999
7. Gustau Gili Galfetti, Allan Wexler, GG portfolio, 1998